

곡성군, 혁신커뮤니티 농가살리기 프로젝트 가동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3년 연속 공모 선정

올해 강빛리빙랩 등 주민체감형 프로그램 추진

곡성군이 국비 8,600만원을 지원받아 커뮤니티를 활용한 농가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우수 지역혁신과제를 발굴해 과제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곡성군은 이번에 <혁신 커뮤니티, 곡성형 농가살리기 프로젝트>라는 과제로 지원해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재작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우수과제에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올해 선정된 사업을 통해 곡성군은

강빛리빙랩, 농촌살이 체험 프로그램, 소규모 농가 살리기 비대면 프로젝트 등을 운영한다. 강빛리빙랩은 지역혁신가와 마을활동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주민자치 확대에 대한 관심과 맞물려 간접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 역할이 될 수 있을 지 기대하고 있다.

농촌살이 체험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도시민이 농촌에서 살아보게 함으로써 귀농귀촌을 유도하는 것이다. 현재 곡성군에서 운영되는 '강빛살이'라

는 프로그램을 보완 및 확대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은퇴자는 물론 농촌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 실버산업에 관련된 청년까지 대상이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소규모 농가 살리기 비대면 프로젝트는 유통망을 갖추지 못한 영세농에게 온라인 판로 구축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영상 촬영 등 스튜디오 활용을 위한 전문가 교육을 진행하고, 우수 농산물 온라인 라이브 판매를 진행한다. 이는 주된 내용이다.

곡성군의 이와 같은 사업계획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지역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비대면 소규모 농가 살리기 프로젝트는 사업 내용이 독창적이고 코로나 시대는 물론



코로나 이후에도 농촌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평을 들었다. 관계자는 "프로젝트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실현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혜영기자

나주시, 옛 영산포역 철도공원 꽃길 조성

영강동 주민자치위원회

나주시 영강동의 인기 산책코스인 옛 영산포역 철도공원 주변에 수국 꽃길이 조성됐다.

영강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최근 '민관이 함께하는 꽃길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철도공원과 국립나주 문화재연구소 주변 산책로 150m 구간에 수국 520본을 식재했다고 3일 밝혔다.

꽃 식재 작업에는 주민자치위원, 행정복지센터 직원 30여명이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참여했다.

영산포역은 일제강점기인 1913년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 한국전쟁 중 소실됐다. 1969년 신축을 통해 호남, 나주를 대표하는 교통, 물류의 중심역으로 명성을 날렸다.

이후 2001년 호남선 복선 전철화 공사 완료에 따른 선로 이설로 나주역과 통합돼 폐역(廢驛)으로 남겨졌다. 이후 2004년과 2019년 2차례에 걸친 관광자원화 사업을 통해 현재의 나주 철도공원의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김하진 주민자치위원장은 "위원들의 값진 수고 덕분에 6~7월 중 환하게 핀 아름다운 수국꽃을 감상할 수 있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마음의 풍요와 위로를 전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민식 영강동장은 "분주한 일상에도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에 동참해주신 위원들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철도공원이 영강동의 대표 관광지이자 휴식처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환경정비와 홍보에 힘써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나주시는 옛 영산포역을 1969년 신축 당시 모습으로 복원하고 역사·기차 체험관, 종합전시관, 행사관, 문화센터, 전망시설 등을 갖춘 총 3층 규모 '영산포역사 문화체험관'을 오는 7월 중 착공할 계획이다.

체험관은 옛 영산포역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추억의 공간이자 기 조성된 철도공원, 인근 관광자원과 더불어 영산포역권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동취재본부

구례군, 행안부-전남도 연계 수해 현장점검 실시

주요 복구사업 점검...재난안전 특교세 70억원 지원 건의



구례군은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한 행정안전부 최복수 재난안전실장에게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70억원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4일 행정안전부와 전남도, 구례군은 합동으로 임시조립주택단지, 마산면 냉천과 광평마을 등 수해

현장을 방문하여 주요 복구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에서 김순호 군수는 "지구단위 종합복구 사업 추진 등 수해 복구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군의 재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지난 해 집중호우로 인

해 서서천 하류에 누적된 퇴적토의 준설사업 등 재난예방을 위한 4건의 사업에 필요한 7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3개 기관은 임시조립주택 이주단지를 찾아 주민들의 불편사항 등을 경청하고, 집중호우 대비 누수 및 배수시설 등을 점검했다.

뒤이어 찾은 지구단위 종합복구 사업 현장에서는 금년도 우기 대비 복구 사업장의 관리감독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불편사항과 사업추진의 애로사항 등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와 도는 대규모 추진 사업인 만큼 금년도 우기를 대비해 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하고, 사업의 조기 준공을 통해 피해 재발 방지와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화순군,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서 '우수홍보관 수상'

코로나19 대응 온·오프라인 운영 홍보 효과 높여



화순군이 '2021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에 참가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과 청년에게 다양한 귀농·귀촌 정보를 제공하고 우수홍보관 상을 받았다.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박람회는 연합뉴스와 농협이 공동 주최했다. 박람회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돼 홍보 효과를 높였다.

화순군은 홍보관을 현장에 마련해 오프라인 상담과 특산물 홍보를 진행했고, 온라인에 전시관을 따로 구성해 지역 특성과 귀농귀촌 지원정책 등을 소개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예비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다양한 귀농 정책 상담

활동을 전개해 코로나19 상황에도 귀농귀촌인 농촌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화순군 귀농귀촌 지원정책으로는 초기 정착이 어려운 귀농인에게 용자를 통해 기반을 마련해 주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선도농가와 1:1 결연을 맺어 연수하는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임시 거주시설인 '귀농인의 집' 운영 등이 있다.

도농 간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농촌에서 새로운 성공 기회를 찾도록 지원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전남에서 잘 살아보기' 사업에 전남 지역에 가장 많은 5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 참여자 5명(14.7%)은 화순군에 전입하는 성과를 얻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적극적인 귀농귀촌 홍보활동에 제약이 있지만 귀농인들의 농촌 정착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귀농귀촌 홍보와 상담 등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시민들에게 우리 군을 알리고 도시민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담양군공무원노조,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전 조합원 상품권 지급

담양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길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공무원들이 동참하고자 약7천만 원의 지역화폐(담양사랑상품권)를 구매해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소비하기로 결정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체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담양군공무원노조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운영기금을 활용해 지역화폐(담양사

랑상품권)를 구입. 모든 조합원에게 1인당 10만 원의 담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담양=박종영 기자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